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⑲ 싯달타 태자의 고행



▶ 한줄요약
싯달타 태자는 가자산 니련하 강변 앞에서 풀을 깔고 결가부좌를 하고 "부처가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고행을 시작했다. 고행은 6년 동안 이어졌으며, 태자는 하루 하루를 삼씨와 쌀 한톨로 연명했다. 건강을 걱정한 가족들이 공양물을 보냈으나 태자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 고행에 야윈 몸엔 금색 광명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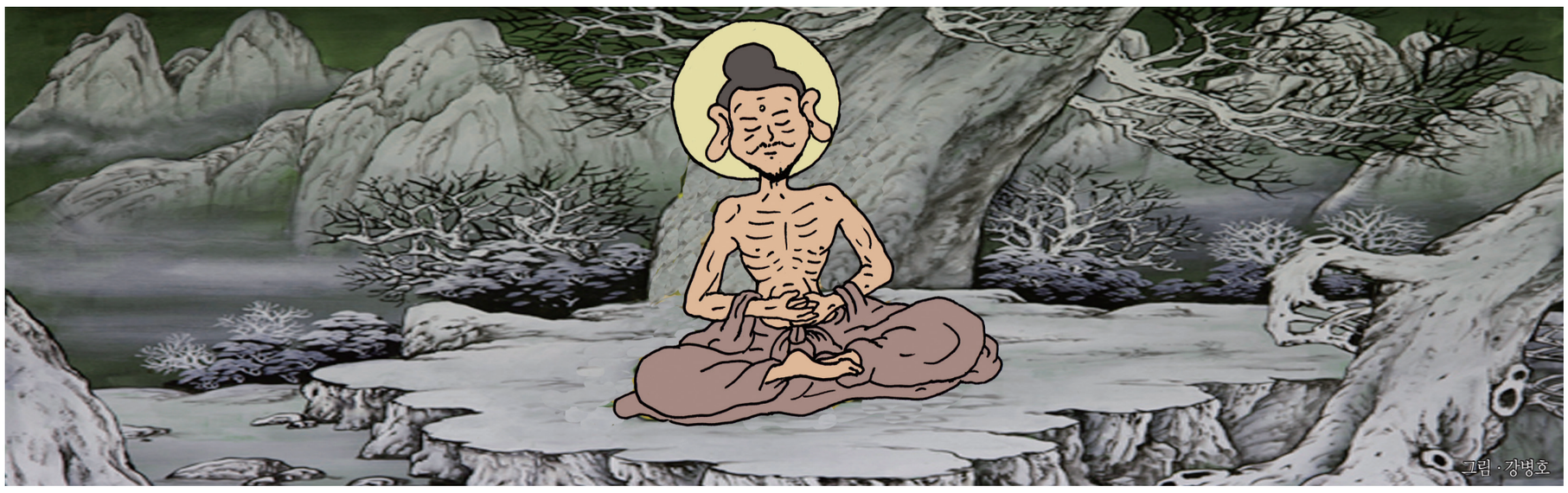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이제 싯달타 태자가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정각에 이르는 〈석보상절〉 제3권의 클라이맥스를 찬찬히 읽어보기로 한다. 다음 이야기는 태자가 정각을 이룬 후 제천이 이바지 하는 내용으로 현전하는 첫 번째 〈석보상절〉 제 3 권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석보상절〉 제 4 권이 아니라 제 6 권이 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권차이기도 하다. 제 6 권에는 마치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처럼 살아있는 대화체가 진진하게 펼쳐져 있다. '야수다라와 목건련', '야수다라와 대애도', '석가모니와 라훌라'의 대화는 눈물과 웃음을 참기 어렵다.

마치 〈월인석보〉 제 1 권의 '선혜'와 '구이'의 세세생생 부부의 인연을 맺는 대화 만큼이나 살아 숨쉬는 우리말 대잔치라 할 수 있다. 〈석보상절〉은 이렇게 사람 냄새나는 조선 최초 불교경전인 것이다.

## 태자의 6년 고행

**태자가 가사산 고행림에 교진여들 다섯 사람이 있는 니련하라는 강가에 오셔서 풀을 깔고 결가부좌하고 맹세하셨다. 결(結)은 교차하여 맺는 것이요, 가(加)는 더하는 것이고, 부(趺)는 발등이요, 좌(坐)는 오른쪽 발등을 왼쪽 무릎에 얹고 왼쪽 발등을 오른쪽 무릎에 얹어서 서로 맺어 앉는 것이다.**

**'부처가 되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으리라.'**

싯달타 태자는 마가다국 상두산이라고도 부르는 가사산 나이란자라강 흔히 '니련하'라고 하는 강가에 자리를 깔고 결가부좌에 들었다. 결가부좌를 설명하는 것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다리를 교차하여 맺고 발등이 위로 오도록 겹쳐서 앉는데 오른 발등은 왼 무릎에 왼 발등은 오른 무릎에 얹어 앉는 자세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자세한 결가부좌 설명을 들은 일이 있는가. 그렇게 자세를 잡고는 다짐하였다. 부처가 되지 못하면 결코 이 결가부좌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언젠가 무문관에 들어가 수행하다 원적에 든 수좌의 이야기를 다큐로 본 적이 있다. 당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젊은 나이에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을 몰고 간 '용맹정진'이란 과연 무엇일까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같이 정진하던 스님들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러나 그 수행을 축수하는 느낌마저 받고 의아하였다. 이 글을 풀이하다 보니 아마 그 수행자도 공부하다 죽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무문관 수행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본행경〉에는 '마군의 경계와 번뇌의 티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대육신이 산산조각 나고 해와 달이 땅에 떨어져도 나는 마침내 이 서원을 어기지 않으리라' 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대단한 서원이 있었기에 범부인 나는 부처가 되신 분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때 태자는 어느 경지까지 고난도의 수행을 하였는가.

**천신이 밥을 바치거늘 아니 잡수시므로 자연히 곁에서 삼씨와 쌀이 나게 하였다. 태자가 하루 한 알씩, 이레에 한 알씩 드시고 여섯 해를 흐지부지하지 않으시어 큰 비도 오며 우레도 치던 여름이거나 겨울이거나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다. 태자의 머리에 까치가 새끼를 쳤는데 사람이 보고 황당히 여겨 풀이며 나무를 코와 귓구멍에 던져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니 교진여들 다섯 사람도 좇아서 고행하였다. 고행(苦行)은 수고로이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끝은 어디일까. 먹지도 자지도 않고 6년을 장좌불와하니 하늘신들이 밥을 가져와 바쳐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여기서 '흐지부지하지 않다'는 '히즛도 아니하샤'를 의역한 것이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히즈려셔 쉬다, 오른쪽으로 히즈 눕고' 등의 활용 선례가 있다. '대충, 편하게'의 의미로 읽힌다. 허투루 하지 않고 용맹정진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수행이 무르익기 전에 목숨이 상할 것이 자명하므로 삼씨와 쌀 한 톨로 연명하도록 태자 주위에 저절로 나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루에 삼씨 한 톨, 일주일에 쌀 한 톨이라니….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의 피골상접한 고행상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큰 비가 와도 천둥번개 우레가 쳐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계셨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묵언으로 수행을 하고 있자니 까치가 와서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흙먼지로 뒤덮인 기괴한 태자를 보고 콧구멍과 귓구멍에다가 풀이며 나무를 쑤셔놓고 괴롭히기까지 하였다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싯달타 태자, 가사산 니련하 앞서**
**결가부좌하고 6년 동안 고행 정진**
**삼씨 · 쌀 한 톨로 하루하루 연명**
**가족들 공양물 보내지만 모두 반려**

그렇게 괴롭혀도 태자는 그것을 빼버리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에만 매진하니 자연스럽게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도 그에게 감화되어 고행 난행의 수행을 따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행은 '수고롭게 수행하는 것'이라 하는 표현은 힌두교의 괴상한 고행들을 연상시킨다. 24시간 한 발로 서있기, 물구나무 서서 평생 있기, 머리카락 뽑기 등 갖은 기묘한 자세나 극단의 추위와 굶주림을 통해 자신을 다스려 해탈할 수 있다는 것과 상통한다.

**다섯 사람이 왕께 사람을 시켜 고행하시는 사연을 사뢰거늘, 왕이 몹시 슬퍼하며 재물을 실은 수레를 500개를 꾸미시며 대애도와 야수도 각각 재물을 실은 수레 500개를 꾸며 차닉이에게 명령하여 보내셨는데 태자가 받지 않고 도로 보내셨다.**

**태자가 고행을 오래 하셔서 살이 여위실 뿐 금색 광명은 더욱 빛나셨다.**

교진여 등 다섯 명은 태자를 보필할 엄명을 받고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태자의 고행으로 자칫 잘못되기라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정반왕께 아뢰니 500수레의 재물을 잔뜩 꾸려 보낸다. 이에 뒤질세라 어머니 대애도와 아내 야수다라도 각각 500수레를 마련하니 총 1,500수레의 재물을 바리바리 싸서 마부 차닉이를 시켜 보낸다.

그 애틋하고 애절한 마음은 식구를 멀리 떠나보내 본 사람이면 알 것이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고 무슨 관련 뉴스라도 들릴라치면 귀가 먼저 달려가는 마음…. 그런데 태자는 그 수레를 돌려보낸다. 보내는 가족의 마음도 죽어도 받을 수 없는 태자의 마음도 읽혀 더욱 애달프다.

고행이 깊어질수록 야위시되 태자 몸에서 더욱 금빛 광명이 찬란해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초월적 의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 번쯤은 무엇인가에 이토록 몰두해 볼만한 인생일텐데 나는 과연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일까. 갑자기 울적해지는 마음은 그 흉내라도 내던 시절이 잠깐이라도 있었을 텐데 세월이 무상하여 모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지워져 가기 때문이다. 범부는 몰입의 시간조차 생로병사 과정이 있음을 체감하는 시절이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육십일장**
**싯달타 가사산 고행에 6년을 좌선하시매 태자 머리 위에 까치가 새끼를 치니**
**교진여가 소식을 전하니 정반왕과 대애도, 야수 세 분이 슬퍼하시어 수레 위에 재물을 실어 보내시니**

**육십이장**
**잡초목 꺾어다가 얼굴을 못 살게 둔들 마음이야 움직이시리오**
**한 톨의 쌀을 드셔서 살이 여위신들 금빛이야 가시리오〈월인23a〉**

교진여가 보낸 '소식'은 옛말로 '유무'라고 한다. 왠지 별일이 있고 없고(有無)가 연상되지만 순 우리말이다. 역시 되살리고 싶은 우리 말 목록에 등재해 두자. 또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쳔'이라고 하였다. '천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최근까지도 쓰는 말이었다. 극도의 고행으로 싯달타 태자의 피골은 상접하고 흙먼지로 뒤덮여 동네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수행으로 맑아진 정신은 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20여 년전 법정스님이 만든 송광사 수련원에 처음 갔을 때 100여 명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첫 날은 표정이 우락부락하고 여성들은 화장을 지워 볼썽사납다가 하루가 다르게 얼굴 빛이 해맑아지고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단 며칠에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6년을 하루같이 정진을 일심으로 한다면 정말 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태자가 생각하시되 '여윈 몸으로 보리수에 가면 후에 사람이 실없는 말로 놀리며 기롱하기를 '굶주림으로 부처가 되었다'할 것이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 몸이 과거와 같아져야 성불하리라' 하셨다. 보리수는 부처께서 그 필발라수 나무 아래 앉으셔서 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리수라고 하는 것이다.**

드디어 정각을 이루려는 찰나이다. 〈과거현재인과경〉에는 '내가 이 파리한 몸으로 도를 얻는다면 저 외도들은 굶주림이 저절로 열반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 할테니 내가 뼈 마디마디 나라연의 힘이 있더라도 이로써는 도를 얻지 않으리라. 음식을 먹은 후에 도를 이루겠다' 고 기록하고 있다.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볼 것을 염려한 것이다. 우리가 보리수라 부르는 것은 'Pippala' 나무인데 '필발라수' 또는 '길상수' 라고도 한다.

이렇게 2600년 전 극단의 고행과 용맹정진으로 앞서 깨달은 인간 붓다가 계셨기에 그저 우리는 또 다른 시행착오 없이 그 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래 십호 중에 '선서(善逝)'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마음뿐 그조차 아득하기만 한 까닭이리라.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